

8 칼빈과 선교

감독은
푸는 일
의 말로
인 지식
는 것이

ion)를
을 일회
자원화
IGO의
년 전

인간
하나
말미암
를 11 :
이는
백히



정훈태, 교수 / 천인대, 신교학

들어가기

하나님의 일꾼, 즉 목회자의 주요 임무가 말씀사역임에 틀림없다.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주요 임무도 말씀사역이다. 선교사면 누구나 집회마다 성경의 말씀을 설교하고, 각양의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인들이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힘쓴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써 신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맛볼 수 있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힘이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힘을 받는다. 우리가 행복할 때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에 종사케 하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한다. 목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믿고 구원받은 교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각양 필요한 사역을 행한다. 즉, 여러 가지 형편에 적응하여 '말씀의 사역'에 종사한다. 선교사는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중사하는 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칼빈은 그의 생애에서 복음 선교를 위하여 헌신한 자로 본다. 복음사역의 주요 임무는 말씀사역¹⁾이며, 목회사역의 심각성은 구원사역에 있음을 강조했다.

1. 칼빈신학의 성격

칼빈신학²⁾, 즉 칼빈의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institutio)에 접할 때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받는 첫인상이다. 헨리 미터(Henry H. Meeter)도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는 복음적 교리 속에 게재되어 있으며,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 있고 생기 있는 진리³⁾라는 것이다. 이 진리들은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가 ‘하나님 교리’에 관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칼빈주의의 중심 사상은 그 위대한 하나님 사상이다. 매선(Pressly, Mason)에 의하면, “감리교는 죄인의 구원에, 침례교는 중생의 신비에, 루터교는 이신득구(以信得救)에, 모라비안은 그리스도의 상처에, 회랍 정교는 성령의 신비에, 로마 가톨릭교는 교회의 보편성을 각각 치중함과 같이 칼빈주의자는 항상 하나님 사상에 치중한다.”⁴⁾고 하였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판단과 이성, 사고적 체계에 기준을 두지 않는다. 그 주도적 사상은 하나님이 당연히 차지하셔야 된다는 점이다. 즉,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⁵⁾이란 말씀을 진리와 생활원리로 삼고

1. 사도행전 20 : 17~38을 보라.

2. 신학이 보편적인 용어가 되기 이전 교회는 그것을 거룩한 교리(Sacra doctrina)로 불렀다.

3. Henry H. Meeter, 박윤선·김진홍 역, *The Basic Ideas of Calvinism*(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1976), 16-17.

4. Pressly, Mason W, *Calvinism and Science*, Article in *Ev. Repertoire*. 1891, 662.

실현하려 한다.

칼빈신학의 성격은 하나님 사상이라는 데 많은 학자들은 인정한다. 다만 일정한 술어로 표현할 때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원자존성이 그의 주요 속성이기 때문에 기본원리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신학의 성격이 그렇게 언급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많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한 개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칼빈신학의 원리는 우주관적인 구성적 원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자존은 우주와는 관계가 없다. 우주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필요한 표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이다.⁶⁾ 이를 다시 해석한다면, 자연계와 도덕계에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란 말이다. 하나님은 사람과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에 있어서 무질서하게 행하지는 않는다. 질서는 신국법칙의 제일 우선순위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일반은총 면에도 진리, 사랑, 도덕, 과학 등의 영역에도 모두 법칙과 질서에 속하여 있다. 칼빈신학의 특징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섭리하시는 우주 가운데서, 법칙과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운 체계를 발견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과도 같다. 워필드(B. B. Warfield)는 “이 모든 사실에 있어서 칼빈주의자는 모든 현상 배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기도하는 태도로 자기 전 생애를 살아가며,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아의존은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⁷⁾라고 한다. 칼빈신학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완전히

5. 로마서 11 : 36.

6. Ibid., 17.

7. Warfield, B. B., *Calvin as a Theologian and Calvinism Today*(Philadelphia : The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909), 23-24.

이어가는 데 있다. 그 외에 칼빈신학의 특징으로 예정론, 하나님의 영광, 영혼구원, 죄인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며, 은혜로 구원하시며, 인생의 모든 영역에 그의 뜻을 완전히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칼빈에게서 신앙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에 대한 지식’이다. 회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전환’(ad deum conversio nostrae vitas)됨이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심각하고 순수한 두려움에서 생겨난 전환이라고 하였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서 그의 은총으로 받아 주시는 용납’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다. 즉, 칼빈에게서는 모든 사상이 하나님 중심임을 알 수 있다.⁸⁾ 이상의 내용이 칼빈신학에서 나타나는 선교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중심이 된다.

1) 칼빈의 복음이해

칼빈은 복음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하기보다는 「기독교강요」Ⅱ권 전체에서 논한 다음, Ⅲ권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복음을 받는 방법과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Ⅳ권에서 압축 요약을 하고, 교회론을 시작하면서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였다.

칼빈은 먼저 하나님의 실존과 그 능력을 확립하여 설명한다. 인간의 비참한 타락과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언급한 후 진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⁹⁾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 복락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가제오신바 구원과

8. 한철하, 한국칼빈학회 엮음, 「칼빈신학 해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2.

9. 박해경,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서울: 아가페출판사, 1998), 208-209.

영원한 복락에 참여자가 되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써이다.”¹⁰⁾

“하나님께서서는 복음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 넣으신다.”¹¹⁾

칼빈에게서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유익¹²⁾을 누린다.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현저하게 ‘영적이고 신비적’이다.¹³⁾ 그리스도인의 은혜 안에서 장성(롬 6:1-14)과 영광에 대한 소망(골 1:27),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로 그 존재까지 모두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에 근거한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적인 복-회개와 믿음, 죄사함, 의롭다하심, 양자 삼으심, 오래 참음,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에서 흘러나오는 원천이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곧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롬 7:4-5),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는”(롬 6:11) 삶으로 매일의 행보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생활할 때 가능하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로 칼빈은 「기독교강요」Ⅲ권에서 설명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즉 복음의 옷을 입고 계시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정해지신 것처럼 복음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올바른 길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 그러나 믿음을 복음에 국한시킬 때에 언제나 복음을 형성시키기에 충분한 것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의해 전수되었다는 사실

10. Inst., IV. I.

11. Inst., IV. I. 5.

12. 여기서 그리스도의 유익이라고 함은 구원, 하늘의 복, 영원한 복락을 의미한다. 복음 그 자체가 구원을 알게 하며, 하늘의 복을 받도록 안내하기 때문이다.

13.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66문.

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현현이 복음 속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믿음의 교리’라 부르는데, 이는 정당한 말이다.¹⁴⁾ 우리가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와 관련시키는 데 이유가 있다. 사도는 복음 전체를 그리스도를 이신 지식 안에 포함시킨다.¹⁵⁾ 회개와 죄 사함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데 충분한 이유가 있다.¹⁶⁾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논의가 이 두 가지 논제를 빠뜨린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불완전하며, 거의 무용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회개와 죄 사함, 곧 새로운 생활과 값없이 얻는 화해, 양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양자를 얻는 것이다.¹⁷⁾

이상의 중요한 인용구는 칼빈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이르는 구원의 길’¹⁸⁾과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방법까지와 그 결실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전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실재, 인간의 죄, 사단의 존재 등이다. 복음의 내용은 구원이며, 복음을 받는 수단이 신앙이고, 복음을 받은 결실은 회개와 죄 사함이다.¹⁹⁾ 복음의 전제는 하나님의 실재하심(히 11:6)과 성경에 대한 바른 신앙,²⁰⁾ 하나님의 심판대,²¹⁾ 인간의 죄와 부패성,²²⁾ 사단의 존재와 그 지배²³⁾ 등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복음이해는 자기가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아는 지식이다. 다른 기독교 단체의 신자들은 인간에게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도덕력이

14. Inst., III. 2. 6.

15. Inst., III. 2. 32.

16. 누가복음 24:47; 사도행전 5:31.

17. Inst., III. 3. 1. 양자는 회개와 죄 사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18. 베드로전서 1:21.

19. 박해경,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 208.

20. Inst., I. 6-10.

21. Inst., III. 12. 1; I. 1-3.

22. Inst., II. 1-3.

23. Inst., II. 4.

있는 줄로 안다. 인간이 자신의 힘을 믿을수록 하나님의 힘을 덜 의지한다. 그러나 칼빈에게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기 때문에 유달리 성령의 필요를 요청하게 된다. 칼빈은 유달리 성화의 모든 요구를 위하여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기에 그는 성령신학자(The theologian of the Holy Spirit)라고까지 불렸다.²⁴⁾ 만약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을 미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칼빈에게서 복음의 이해는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오고,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힘에 의하여 생활의 일체를 하나님을 위하여 바칠 때만 더 고상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칼빈은 무슨 새로운 사상학파를 구성하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다만 복음의 순수한 것,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만이 인간과 만사의 주가 되시며 그것을 밝히기를 원하는 것을 말한다. 칼빈은 영혼 구원을 강조하는 구원론에 있어서는 그의 사상의 핵이다. 칼빈의 독특한 사상 가운데 하나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은 ‘오직 은혜로만’(Sola Gratia)이란 사상에 뿌리를 박고 있다.²⁵⁾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이유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이다.

2) 복음신앙의 중심성

앞에서 우리는 복음의 이해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신앙의 내용은 ‘믿음도 하나요’²⁶⁾라고 한 대로 ‘유일하신 참하나님’ 한 분에게로 집중된다. 물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²⁷⁾고 하신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24. Henry H.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50.

25.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서울: 한국성서협회, 1979), 169.

26. 에베소서 4:5.

길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두 신앙이 아니고 한 신앙이다. 따라서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각각의 일들로서 그의 존엄하신 영원한 작정(eternal sovereign decree) 가운데 무한하신 은총을 나타내시기 위한 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²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확증을 따라 이 은총에 의지하는 신앙만이 참된 것이다. 칼빈은 이 신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할 수 있겠다. 믿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를 근거로 삼은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가 된다.”²⁹⁾

여기서 복음신앙은 한마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지식’이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약속의 진리에 근거’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 같은 신앙을 소유할 때만이 참된 선교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사실 칼빈에게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과 선교사업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칼빈은 그 신앙의 대상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divinae erga nos benevolentiae)에 두고, 그 진리 확정 근거를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약속의 진리(gratuitae promissionis veritate)에서 근거를 찾음으로써 역사적 신앙(fides historica)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³⁰⁾ 동시에 모든 신앙조항들이 복음신앙 안에서 최대의 엄격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이해되고 견지되어진다.

27. 요한복음 14 : 1.

28. 한철하, “복음주의 신학의 과제,” 『성경과 신학』,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제7권(서울 : 기독교문서, 1989), 15.

29. Inst., III. 2. 7

30. 한철하, “복음주의신학의 과제,” 17.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는 다음과 같은 성구들의 중대한 의미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³¹⁾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³²⁾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³³⁾는 말씀과 같이 시종일관 신앙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는 알기 위하여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가치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믿는다는 사상이 중심이다. 즉, 칼빈의 선교신학은 믿음을 일으켜 주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신앙³⁴⁾이다. 복음신앙은 낱개 하고(선교), 증진시켜 주며(선교를 통한 양육), 목표에 도달시켜 주는 것이다(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하도록 하는 데 있다.

2. 칼빈의 선교신학의 영향

1) 칼빈신학에서의 선교

선교는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명령이다.³⁵⁾ 이

31. 히브리서 11 : 3.

32. 요한복음 15 : 5.

33. 빌립보서 4 : 13.

34. 복음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신앙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이 전제되어 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멸망 위기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신앙이 복음신앙이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내용을 다 표출하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에서 볼 수 있는 신앙의 조항들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복음신앙의 내용을 교리체계로 형성한 최초의 산물이다.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형성된 주요 교리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복음신앙에 대한 아리우스주의의 위협을 극복하고 이루어진 성부와 성자의 동일성의 교리, 네스토리우스주의나 아폴리나리스주의의 위협에 대하여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양성-인격의 교리, 펠라기우스주의의 위협에 반대하여 생겨난 어거스틴의 은총의 교리, 그리고 중세교회의 사제주의의 위협에 반대하여 다시 천명된 종교개혁의 원리인 sola fide(오직 믿음으로만), sola gratia(오직 은혜로만)의 교리이다.

35. 마태복음 28 : 19~20.

것은 가장 분명한 선교의 명령이다. 이 명령은 구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주된 목적은 인간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데 있다. 인류는 아담 안에서 멸망했다. 죄로 인해 오염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서 죽음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구원은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화목을 위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복락으로 전진하기로 되어 있다³⁶⁾는 점이다. 이와 같이 죄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그의 전 인생과 그가 처한 모든 관계가 왕이신 그리스도 아래로 옮겨져야 한다.³⁷⁾ 이것이 바로 칼빈의 선교관(Calvin's View of Missions)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해외선교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영혼구원과 영광관념, 선교정신은 변화하지 않았다. 그의 선교 사상은 사도행전 1:8에 근거로 한다. 그에 의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영역에 있어서 '땅 끝까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선교의 대상이었다.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선교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칼빈의 선교는 철저한 교회관과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라야 한다. 즉, 오직 성경에 의한 교회관을 수립하였고, 이런 교회관을 통하여 선교는 새로운 발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³⁸⁾

그리고 칼빈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의무는 예정론과 모순되지 않는다."³⁹⁾고 주장한다. 사실 칼빈은 선택교리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으라."⁴⁰⁾고 우리를 명령하신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요 6:65)는 말씀은 거짓도 아니며, 그의 명령에 상반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계속하여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믿음 안에서 보

존하여 끊임없는 유익을 얻게 해야 한다⁴¹⁾고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예정론의 가장 첨예한 문제는 복음전파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이다. 이것이 복음전파에 잘못 적용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복음전파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 무시된다.⁴²⁾ 칼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고,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였는지, 그의 택함을 받은 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칼빈의 선교는 구원론적이면서 목회⁴³⁾적인 관점에서 택함받은 백성은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칼빈 자신이 복음사역을 강조하는 것이 되며, 그의 신학이 선교적이라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칼빈이 「기독교강요」 IV권에서 강조하는 은혜에 대한 것도 선교(전도)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칼빈의 예정론은 선교를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교는 택함받은 자의 의무이며,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 하나님의 영광 등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

41. Ibid.

42. 이병수, 「칼빈과 선교」, 5.

43. 목회라고 할 때 바울을 생각해야 한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목회사역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자기는 모든 겸손으로 목회하였다는 것이다(살전 2:7). 그가 온유와 겸손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일이 너무나 커서 겸손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눈물의 목회를 하였다고 한다(행 20:31). 세 번째는 바울은 각 사람, 각 집을 상대로 한 사역이었다. 마지막으로 또 전체로서 바울의 목회사역의 중심은 구원사역이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회개의 죄 사함, 이것은 구원의 전 내용이다. 구원사역이 곧 선교와 연결된다.

36. Inst., II. 6:1.

37. J. H. Bavink., *The Impact of Christity on The Non-Christian World*. 18-19.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169에서 재인용.

38. Inst., IV을 참고하라.

39. Inst., III. 23:12-14.

40. Inst., III. 23:13.

2) 칼빈의 자민족 선교

이상의 선교 사상에 근거하여 칼빈주의자들은 종교개혁을 국내 선교, 즉 자민족⁴⁴⁾ 중심의 관점에서 조망한다. 에드워즈(Charles E. Edwards)는 “종교개혁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국제적인 규모의 선교였다.”⁴⁵⁾고 묘사한다. 요하네스 반덴버그(Johannes Vanden Berg)는 종교개혁 당시 교회가 행했던 모든 사역을 하나의 선교적 사건으로 묶으로써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종교개혁과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는 어떠한 명백한 구분이 없다.”⁴⁶⁾ 결과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과 선교와의 관계를 국내 선교의 관점에서 발전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클루스터(Fred H. Klooster)⁴⁷⁾는 “종교개혁은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국내 선교 사업들(Home missionary project) 중의 하나로 여겨질 만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종교개혁을 국내 선교로 보는 이유는 첫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변질되었고(badly deformed), 명목상의 기독교 신자들이었고,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그 당시 세속적인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들을 개종시키고, 개혁하고, 기독교화하는 것은 개혁자들의 하나의 도전이었다. 이 도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종교개혁인데, 이것은 ‘진정한 선교사역’(really mission work)이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칼빈의 국내 저작물들이 선교적 성격을 강조한다.⁴⁸⁾ 칼빈의 저서들은 서신서들,

44. 네비우스 선교 원리는 원주민에 의한 원주민 선교이다. 한국선교의 초기에도 자민족 중심의 선교를 전개함으로 선교가 확산되었다. 원주민 지도자 양성은 자민족 선교의 활성화에 가져다 주는 좋은 계기가 된다. 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 정책」(서울: 대한기독교사회, 1994)을 참고하기 바란다.

45. Charles E. Edwards, “Calvin and Missions,” *The Evangelical Quarterly* 8, 1936, 47-51.

46. 화란 자유대학교의 선교학 교수이다. Calvin's missionary message, *The Evangelical Quarterly* 22, 1959, 174-187. 이병수, 「칼빈과 선교」(한국칼빈학회, 1998)에서 재인용.

47. Fred H. Klooster은 미국 칼빈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다. 그의 글 Missions—the Heidelberg Catechism and Calv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7, 1972, 187.

논문, 주석, 성경번역(라틴어본), 그리고 「기독교강요」가 국내 선교적 색채를 풍기고 있다. 아무튼 칼빈의 선교에 대한 관심은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외까지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된다.

3) 칼빈의 해외선교

중세 이후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신학적 논쟁에 치중했기 때문에 선교신학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하였으나, 선교학의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선교의 메시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였으며,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려고 시도하였다. 현대 많은 선교학자들은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선교가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신학과 활동에서 선교 사상을 체계화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선교를 중요한 교회의 임무로 간주하였다.⁴⁹⁾

그리고 칼빈은 국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한다. 특히 스텐포드 리드(Stanford Reid)는 제네바에 의한 프랑스에 대한 선교가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해외 선교활동으로 간주했다.⁵⁰⁾ 프랑스에서 가톨릭 교회에 종교적 박해를 받았던 위그노(Huguenots)들이 제네바에 있던 칼빈에게 모여들었다. 그들은 칼빈의 지도 하에서 교육을 받은 후 1555년과 1563년 사이에 프랑스에 88명의 선교사들이 보내졌고, 그들에 의해서 1562년까지 2,150명의 회중(congregations)들이 생기게 되고 시노드(Synod)가 조직되며 이것이 프랑스 개혁교회 조직의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⁵¹⁾

또 하나는 칼빈은 원주민에 의한 원주민 교육을 통하여 선교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칼빈이 머물고 있던 제네바의 영국 선교인데, 가톨릭의 종교적

48. Ibid., 187-189.

49. 전호진, 「선교학」(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3), 23-24.

50. Stanford W. Reid, Calvin's Geneva: A missionary centre.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42: 1983, 65-74. 이병수, 3에서 재인용.

51. Ibid., 68-70.

박해 가운데서 많은 청교도들이 제네바의 칼빈에게 찾아와 신학적 교육을 받고 다시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칼빈의 신학이 왕성하게 움직였던 화란도 제네바 선교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교육을 통하여 유럽을 복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선교사⁵²⁾까지 파송하였다. 1556년 빌레가농(Villegagnon)은 존 칼빈(John Calvin)에게 사자를 보내어 신대륙의 거류자들의 문란한 생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올바른 교리를 교육받은 경건한 칼빈주의자들을 보내어 줄 것을 요청하자, 칼빈이 직접 선택하여 브라질로 그들을 보내었다.

칼빈은 세 척의 배에 300명의 장로교인들, 대부분의 선원들과 15명의 목사들이 동행하였다. 훌륭한 세 척의 배(Grande-Bretagne, Petite-Roberge, Rosee)에 나누어 타고 1556년 11월 17일에 옹플뢰르(Honfleur)에서 출항하였다. 이 선박의 총책임자는 빌레가농(Villegagnon)의 생질인 보와즐 콩뜨(Boisle-Comte)였다.

이 여행에는 몇 명의 세공업자와 다섯 명의 젊은 프랑스 청년들이 통역 자격으로 승선하였고, 다섯 명의 젊은 여자들이 노파 한 명과 함께 동승함으로써 이들이 브라질의 리오(Rio)에 첫 백인 여성들로 구성되었다고 브라질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장로교 선교사들과 교인들을 태운 선박들은 1557년 3월 7일 콜리니(Coligny) 항에 도착하여, 3월 15일에는 아름다운 과나바라(Guanabara) 만에 입항하였다. 15명의 선교사들 중에는 특출한 목사 두 분도 포함되어 있다. 페더 리히어(Pierre Richier) 목사는 원래 수도사였으나 개종하여 개혁파 목사가 되었으며, 기욤 사르띠르(Guilhume Chartier)는 방대한 성경지식의 명설교가였다.

칼빈이 브라질에 파송한 선교사 15명의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Felipe De Gorguilleray, ② Pedro Richer, ③ Guillaume Chartier, ④ Pedro Bordon, ⑤ Mathhieu Verneil, ⑥ Jean Bordel, ⑦ Andre La Fon, ⑧ Nicolau Fonte, ⑨ Nicolau Denis, ⑩ Jean Gardier, ⑪ Martin Davi, ⑫ Nicolau Recignet, ⑬ Nicolau Carmul, ⑭ Jacob Ruffe, ⑮ Jean De Lery 등이다.

그 가운데 르리(Lary)는 22세로 최연소자였고 나중에 그는 훌륭한 역사가로서 *History Dun Voyage Faict Dans La Terre Du Bresil*이라는 명작을 남겼다.⁵³⁾ 이는 브라질 여행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모아 놓은 역사책이었다. 이 같은 선교의 결과로 브라질의 첫 장로교는 300명의 신자들과 15명의 탁월한 목사들로 구성된 대교회였다. 이들은 1557년 3월 21일에 개혁교회의 방식을 따라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이들의 열심으로 회심자들, 거류민과 친근한 인디언들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는 칼빈 자신이 선교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많은 칼빈주의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화란의 칼빈주의 운동도 제네바 선교의 노력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한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되어 스트라스부르에서 1538년에서 1541년까지 약 3년의 체류기간 동안 화란의 개신교 핍박자들을 만났고, 그들은 칼빈이 다시 제네바로 돌아갈 때 함께 따라갔다. 제네바에서 그들이 칼빈의 신학을 배운 뒤에 화란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화란의 칼빈신학이 꽃을 피우게 되었다.⁵⁴⁾ 그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인데 그는 칼빈신학에 근거하여 모든 문화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최선을 다한다는 목적 하에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 헌신하였다.

아무튼 칼빈의 선교는 실패로 끝이 난 부분도 있지만 도전과 비전을 심어 준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대하여 베버(Beaver)는 감동적으로 표현을

52. Herbert J. Kane., 신서균·이영주 역, *A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세계선교역사」(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93), 100-101.

53. 김수자, “브라질 개신교 역사”(장로교를 중심으로), (Brazil: Brazil Praise Theological Seminary 미간행석사학위논문, 1996), 8-10.

54. 이병수, 「칼빈과 선교」, 3.

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척교회들은 브라질의 순교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 짧은 기간의 선교는 어떤 수적인 열매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선교에 대한 책임에 직면했을 때 제네바 교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였고, 그때 상황적 증거들이 칼빈의 브라질 선교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가 있음을 지적해 준다. 선교의 개념이나 실천에 어떠한 적의도 없었다.”⁵⁵⁾

여기에 대하여 베버(Beaver)는 만약 브라질 선교가 성공했다면 그것에 자극을 받은 칼빈이 선교에 대한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글을 쓰지 않았겠는가 하고 추측한다.⁵⁶⁾ 그렇다. 하나의 성공은 그 다음을 열 수 있는 지름길이기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선교는 언제나 핵심적이면서 구체적이었다. 그 이유는 신학적 사상에서 선교에 대한, 즉 영혼구원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칼빈의 선교활동과 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는 칼빈의 선교이론을 다루기 전에 그의 신학에 어떤 선교가 있었는가라고 오해를 한다. 칼빈의 신학에 대한 오해는 먼저 예정론에 대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예정론이 선교에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에 대하여 즈웬머(Samuel A. Zwemer)는 칼빈의 예정론이 선교를 막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의 설교와 강요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⁵⁷⁾ “복음의 초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갈망하신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

55. Pierce R. Beaver, *The Genevan mission to Brazil*. In *Heritage of John Calvin*, ed. John Bratt, Grand Rapids : Wm. B. Eerdmans, 1973, 70-72.

56. *Ibid.*, 57.

57. Samuel M. Zwemer, *Calvin and the missionary enterprise*, *Theology Today*, 1950, 8. 210-211.

파할 의무는 예정론과 모순되지 않는다.”⁵⁸⁾ 실질적으로 예정론의 가장 예한 문제는 복음전파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관이다. 그리고 구원과 유기⁵⁹⁾의 이중 예정론을 주장함으로써 충돌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정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다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어떠한 곳으로 물어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⁶⁰⁾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게 되었다는 것⁶¹⁾과 하나님이 어떤 이는 영생으로, 어떤 이는 영벌로 예정했다⁶²⁾고 주장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로,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구원하신다⁶³⁾는 것이다. 칼빈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으며, 그의 택함을 받은 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칼빈의 신학은 구원론적이며, 목회는 선교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사역이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칼빈의 신학은 구원론적이면서 선교적이다. 그리고 칼빈의 그리스도 왕국은 미션 마인드이며, 선교지의 확장은 교회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교적이라 할 수 있다.⁶⁴⁾

58. *Inst.*, III. 23 : 12-14.

59. 칼빈은 유기론과 대치되는 성경구절을 사용한다. 마태복음 22 : 14의 청함받은 많은 사람들과 택함을 입은 적은 무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겔 33 : 11),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딤후 2 : 4),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며(벧후 3 : 9), 베드로후서 1 : 3 등이다. *Inst.*, III. 24. 5-16을 참고하라.

60. *Inst.*, III. 21. 1.

61. *Inst.*, III. 22. 2. 9.

62. *Inst.*, III. 21. 5.

63. 디모데후서 1 : 9.

64. 칼빈의 *Inst.*, I, II권은 구원론적인데 결국은 선교학적이라고 보면 된다. 이 같은 측면에서 한철하는 「기독교강요」 IV권을 볼 때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신학은 외적인 도구이고 예정은 은혜인데, 이는 곧 전도의 원동력

나오기

지금까지 우리는 칼빈의 선교에 대한 논의를 해 보았다. 칼빈에게 있어서 선교는 Inst., IV.1에 기초한다. 칼빈신학의 목표는 믿음을 세워 주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기독교 교리들은 그 자체로서 문자적 진실성을 그대로 가지거나, 그 모든 것은 복음신앙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일에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 더욱이 복음신앙이 망각된 채 교리 각 항의 논의에 그쳐서도 안 된다. 선교는 복음신앙을 외면한 채 선교 프로젝트나 전략을 세우는 것은 목표에 빗나가는 일이다.

칼빈에 있어서 종교라면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총칭인 것이다. 그의 핵심은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돌보는 교회의 사역 등이다. 따라서 칼빈에 의하면 성경을 읽을 때 각 절에서 세 가지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의 각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전제 되어야 하고,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못 얻는가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살피는 가운데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딤후 3:15-17). 이러한 것을 통해 온전한 신앙과 구원과 삶에 이르도록 하는 것에 신학의 목적이 있다.

특히 칼빈의 신학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된다. 그것은 복음신앙을 일으키고, 증진시키고, 목표를 갖도록 하는 것이 곧 선교라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신학을 연구하는 일이나, 목회사역에 헌신하는 일이나,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이 복음신앙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신앙이 유일한 진리임을 알고, 신본주의 신학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divinae erga nos bevolentiae cognitio)으로서 사실 그의 진노

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예정론은 선교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칼빈 학회 논평에서, 1998. 4. 20).

가 감추어는 감이 있다. 그러나 저 호의(benevolentia)의 전제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죄와 진노의 심각성이 전제되지 않을 때 어떻게 그의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세우는 성경의 말씀사역을 하는 일이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복음신앙을 세우면서 오늘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불신앙과 싸우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사역에 힘을 다해서 종사해야 한다. 복음신앙을 세우고, 말씀사역으로 그 신앙을 선전하고 굳게 세우는 일만이 선교는 가능한 것이다.

참고문헌

1. Pressly, W Mason. *Calvinism and Science*. Article in *Ev. Repertoire*, 1891.
2. B. B Warfield. *Calvin as a Theologian and calvinism Today*. Philadelphia : The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909.
3. Charles E. Edwards. "Calvin and Missions." *The Evangelical Quarterly* 8, 1936.
4. Fred H. Klooster. *Missions—the Heidelberg Catechism and Calv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7, 1972.
5. Pierce R. Beaver. *The Genevan mission to Brazil*. In *Heritage of John Calvin*. ed. John Bratt, 1973. Grand Rapids : Wm. B. Eerdmans, 1973.
6. Samuel M. Zwemer. *Calvin and the missionary enterprise*. *Theology Today*, 1950.
7. Henry H.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박윤선·김진홍 역.

- 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1976.
8. Stanford W. Reid, Calvin's Geneva : A missionary centre.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42, 1983.
 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2. The Westminster Press.
 10. 광안련, 박용규·김춘섭 옮김,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94.
 11. 허버트 케인, 「세계선교역사」. 신서균·이영주 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12. 존 칼빈, 「기독교강요 I-IV」. 서울 : 성문, 1994.
 13. 한철하, 한국칼빈학회 엮음, 「칼빈신학해설」.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12.
 14. 박해경,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 서울 : 아가페 출판사, 1998.
 15.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서울 : 한국성서협회, 1979.
 16. 전호진, 「선교학」. 서울 :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3.
 17. 한철하, “복음주의 신학의 과제.” 「성경과 신학」.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제7권, 서울 : 기독교문사, 1989.
 18. 이병수, “칼빈과 선교.” 한국칼빈학회 논문 발표, 1998.
 19. Brazil : Brazil Praise Theological Seminary. 김수자, “브라질 개신교 역사”(장로교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20. “칼빈과 선교.” 한국칼빈협회, 1998.